10.15686/fkl.2024..63.410 OPEN ACCESS

1990년대 한강 소설의 정신장애여성 재현 연구

최새힌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서론
2 정신장애여성 재현의 ‘90년대적’ 조건
2.1 1990년대 한국의 정신의학적 의료화와 인식의 재편
2.2 1990년대 소설의 광녀 형상과 정신장애여성
3 의학적 경험의 일상성과 정신장애여성 주체성의 재현
3.1 일상적 의료권력과의 예속·거래·저항
3.2 고통·고난의 발화와 침묵
4 정신장애여성 재현의 시간성과 공간성
4.1 치유 폭력과 장애의 시간성
4.2 ‘가족’과 ‘고향’의 알레고리화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1994년에서 1999년 사이에 발표된 한강의 소설들에 나타난 정신장애여성(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1] 재현을 당대의 의료담론에 의한 인식 체계의 변화와 한국 소설에서의 '아픈·미친 여자' 서사의 등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미친 여자'의 서사가 교차적으로 문화적인 정신장애여성의 신체·정신을 고려하는 여성주의 장애학적 관점으로 독해되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서사가 위치한 조건의 맥락과 현존적 재현의 가능성을 밝히는 것을 핵심 과제로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한강의 소설들이 앞서 분석한 맥락과 조건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미친 여자' 서사에서 정신장애여성의 신체성과 현존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판단하에 1990년대에 발표된 소설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산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Sandra Gilbert, Susan Gubar)가 『다락방의 미친 여자』[2]를 통해 여성문학을 검토했던 것처럼 타자성의 대표적 상징이자 문화적 은유로서 광기와 여성의 이미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교환되고 교착되는 관계에 있다. '미친 여자'[3] 형상은 동양과 서양에서 역사·사회·문화

---

1 이 글은 장애(disability)가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험상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범주이며, 주 어진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또는 사회생활의 주요한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 하는 능력이 일정 부분 또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수전 웬델(Susan Wendell)의 정의를 따른다.(수전 웬델,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역,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60쪽.) 이 논문은 장애여성의 정체성이 '장애인'과 '여성' 범주의 단순한 합(合)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 한 범주가 나머지 범주를 수식하는 '장애 여성'이나 '여성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여성'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여성을 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mentally disabled women'이 아닌 정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가 더 본고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역어의 구분을 두는 것이 마땅하나, 아직 이를 구분하여 '정신적 장애여성'으로 표기하는 연구가 드물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신장애여성'을 채택하되, 이는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의 역어임을 밝힌다.

2 산드라 길버트·수잔 구바,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이후, 2009.

3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재현된 형상의 광기에 대해 언급할 때 사회적·경험적 상태와 범주에 대해서는 '아픈', '미친', '아픈·미친' 등의 용어를, 의료화·개인화된 측면에 대해서는

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며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미친 여성 혹은 정신장애나 정신 질환을 가진 여성에 대한 젠더화된 이미지는 정상의 경계 밖에 있는 여성들을 재현하는 흔한 방식이다. 한국현대문학에도 '미친 여자'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 전반에 출현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는 한국문학에서 정신장애여성이 가장 빈번하게 재현된 시기 중 하나였다. 1990년대는 여성인물 서사의 본격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1990년대 초는 여성문학이 제도화된 문학장에 적극 호출되었던 시기로, 당대 여성작가의 여성 인물에 관한 서사 관한 논의가 문학적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여성 인물 개인의 서사를 다루는 작품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두드러진 만큼 많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때 '여성문학'은 한국에서 새롭게 재의미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언급된 '여성문학'에 정신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일이 빈번했을 뿐 아니라 '여성문학'을 논의할 때의 비평적 언어에서 정신분석학적인, 혹은 의료적인 어휘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글이 정신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수많은 1990년대 소설 중 한강의 소설들을 여성주의 장애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이유는 첫째, 그동안 1990년대에 발표된 한강의 소설들[4]은 '90년대 여성문학'과 '신세대 문학' 담론 바깥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면밀히 논의되지 못했으며 정신장애여성 형상들이 다수 등장함에도 획일적인 방식으로 비평·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1990년대적 의료화 이후 일어난 문화적 담론 변화에 따른 정신장애여성과 관련된 은유의 발생·변동 과정을 여성주의 장애학의 프리즘으로 포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강 소설에서의 정신장애여성 형상들이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화 담론의 자장 안과 밖에 존재했던 한강의 1990년대 소설에 나타난 정신장애여성 형

'정신장애', '정신적 손상', '정신질환'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4 이 글에서 논의에 포함하고 있는 소설의 발표 지면은 다음과 같다.
한강, 「질주」, 『한국문학』, 1994년 5·6월.
한강, 「여수의 사랑」, 『리뷰』, 1994년 겨울호.
한강, 「흰 꽃」, 《하이텔문학관》, 1996년 여름.
한강,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비평』, 1997년 봄호.
한강, 『검은 사슴』, 『문학동네』, 1998.

상과 그 서사적 배치 방식을여성주의 장애학의 시각에서 독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0년대 한강 소설의 '미친 여자'들을 정신분석적 혹은 은유적 토대 위에서만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미친 몸들의 역사적인 신체화와 의학적 언어를 살펴보는 동시에 몸과 정신질환을 실재로서 사유"[5]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정신장애여성의 문화적 재현은 여성의 신체적 결함이 반영된 결과물도 아니며, 문화적 관습의 결과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논문에서 다룰 1990년대의 '미친·아픈 여자'의 형상은 1990년대 한국의 의료화라는 의학적·문화적 인식 체계의 변동과 실재하는 아픈 여성의 몸·마음 그리고 문학적 은유의 시대적 변동이라는 상호 교차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아픈·미친 여자'에 대한 재현이 구성되는 복합적인 과정과 방식을 추적하기 위해 광기와 장애, 젠더 담론을 교차적으로 검토하며 살펴보고 그 정치적 효과와 의미를 탐색하는 일은 여성의 정신적 장애 재현의 유일한 해석 틀처럼 여겨졌던 정치적 저항과 탈정치적 도피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서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일이기도 하다.

2 정신장애여성 재현의 '90년대적' 조건

2.1 1990년대 한국의 정신의학적 의료화와 인식의 재편

한강의 초기 소설이 발표된 시기(1994-1999)는 한국사회에서 정신의학의 의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서구의 정신장애 관련 담론 및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한편 그 치료법과 관련된 자료가 대중적으로도 확산되면서,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었다. 다만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의 증진이 곧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이해'의 증진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의료화'란 의학 전문가들이 "미덕이나 정당성의 이름이 아니라 건강의 이름으로", 곧 의학이라는 '중립적이고 객관

5 Elizabeth Donaldson, "Revisiting the Corpus of Madwoman: Further Notes Toward a Feminist Disability Studies Theory of Mental Illness", *Feminist disability studies*, Indiana University Press, 2011, p.104.

적인' 지식을 매개로 하여 개별 환자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제도를 규율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곧 1990년대는 정신장애의 치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한편으로 정신장애 환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199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정신장애여성은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대 들어 우울증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커진 것은 물론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경험적인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울증에 대한 언론의 관심 증가를 이끈 것은 1990년대 들어 뇌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우울증 진단이 용이해지는 한편, 그 치료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데 기인한다. 1990년대에 들어 우울증은 뇌 신경계 질환으로 전격 재정의되어 '뇌의 질병'으로 인식되었다. 신경전달물질과 우울증 간의 상관관계가 국내 정신의학계에서 큰 관심을 일으켰으며 약물 중심의 신체 치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 요인은 1980년대 말부터 프로작 등 신경계에 작용하는 신약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니콜라스 로즈(Nikolas Rose)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슬픔의 의료화는 주체화의 정치 경제학, 자기 정체화를 위한 좋은 삶에 대한 이미지, 일상적 실존을 위한 교육학 등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사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는 자아를 형성하는 공적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개인은 이러한 공식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우울증 진단의 확산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자아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6]

의료화는 언제나 젠더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신체보다 더 쉽게 의료화되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정신의학의 일상화는 우울증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를 알 수 있는 사회적 지표로는 '주부우울증'에 대한 신문기사가 있다.[7] 정신장애와 주부를 연관 짓는 사회적 담

6 Nikolas Rose, "Beyond Medicalisation", *The Lancet 369*, Elsevier Science B.V., 2007, p.702.

7 비단 주부우울증, 산후우울증뿐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젊은 여성의 우울증'이 당시 사회적 문제로서 큰 화두였다. 이에 관련된 기사로는 「늘어나는 20代 직장여성 신경증 스트레스가 主犯」, 〈경향신문〉, 1991.04.22. 17쪽.; 「월경前증후군 환자 10명중 1명 자살기

론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1981년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8]에는 의사들이 진행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단란한 가정"과 "가족제도·가치관의 변화"를 제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에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 체계가 국가의 단위로서의 가족과의 연결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그 일상성과 권력적 확장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1990년대 정신장애여성의 의료화가 야기한 효과 중 괄목할 만한 것은 몸의 통제에 대한 환상이 증대했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5대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문기사의 양은 1995~1996년과 2005년 두 시기에 걸쳐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중 1995~1996년에 기사량의 증가를 이끈 것은 우울증 환자가 저지른 범죄 사건이나 유명인의 우울증 발병 기사와 같은 '사건 보도' 기사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우울증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이전 기간에 비해 많게는 3, 4배 가량 증가한다.[9] 이러한 현상은 자기통제·자기관리의 정치와 관련된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연관이 있다.[10] '사건 보도' 기사가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생산하는 한편 그것을 비일상적이고 이질적인 사례로 다룬다면, '정보 제공' 기사의 경우 우울증이 "매우 '정상적인—심지어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의—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11]하며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위험'으로서 "충분한 자가진단과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건부적인 성격을 띤다."[12] 수전 웬델은 몸에 대한 통제의 환상이 유지되는 것은 "몸, 죽음이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나 대부분 의료적인 문

도」, 〈동아일보〉, 1996.10.16. 12쪽.; 「여성우울증 남성2배 원인은 「세로토닌」」, 〈동아일보〉, 1997.05.14., 9쪽. 등이 있다.

8 「女性 정신장애 30代主婦에 가장많다」「女性 정신장애 30代主婦에 가장많다」, 〈경향신문〉, 1981.12.03., 6쪽.

9 이현정, 「1991~2010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우울증 담론의 변화와 그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5, 한국문화인류학회, 2012, 52, 55쪽.

10 이현정, 앞의 논문, 72쪽.

11 이현정, 앞의 논문, 69-70쪽.

12 이현정, 앞의 논문, 71쪽.

제가 되었고, 우리에게 숨겨진 채로 의료 제도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13]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환상은 몸을 통제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다움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존재하게 하고 통제에서 벗어난 몸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서 배제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1990년대 문학에 정신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여성의 경험과 형상이 부상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정신의학적 의료화의 자장 위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대의 정신장애의 의료화는 전문의의 권력 강화, 정신장애여성의 정신의학적 진단 범위 확장과 약물 치료의 홍보, '미친 여자'와 '아픈 여자' 형상의 결합, 폭력에 대한 논의의 소멸, 자기통제에의 환상 강화 등 실재적이고 문화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본질주의적이고 에이블리즘에 입각한 사고를 유발하도록 인식을 재편, 정신장애여성을 의료적 언어로 대상화·타자화고 사회적 논의를 단순화하게끔 한다. 한강의 문학을 포함한 1990년대의 정신장애여성 문학적 형상 역시 이러한 변화의 영향 위에 존재하였다.

2.2 1990년대 소설의 광녀 형상과 정신장애여성

1994년부터 발표된 한강의 소설들은 1990년대 '미친 여자' 서사들의 계보와 지형 가운데에 기존의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형태의 정신장애여성 형상을 등장시킨다. 한강의 소설에서 '미친 여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친 여자'의 시선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진단과 치료를 권유받아 스스로 병원에 가는 환자로 등장하기도 하며, 정신장애여성들은 주요 인물을 위해 존재하는 가족과 친구가 아닌 주요한 행위와 발화를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소설들은 기존의 '미친 여자 서사'들을 차용하여 이의 변주를 통해 고정적 환유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분법적 시간성을 강요하지 않고 현재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서사적 배치를 통해 미친·아픈 여자 형상들의 현존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1990년대 한강의 소설들을 정신장애여성의 형상을 다양한 '정체성들'의 일환으로써 재

13 수전 웬델, 앞의 책, 185쪽.

현한 소설로서 새롭게 위치시키고자 한다. 한강의 소설들은 왜, 무엇을 위해 정신장애여성을 어떻게 등장시켰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의 방식으로 답하지 않는 서사들이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당대의 소설들과 함께 면밀한 분석을 요하며 정신장애여성의 현존과 그 독해를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문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장애여성을 재현하였다. '미친 여자'의 형상은 1990년대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나 비극에 도구적으로 동원되기 쉬운 서사적 장치였다. 그럼에도 1990년대에 나타난 정신장애여성 재현의 발흥은 '집단'과 대비되는 '개인'으로 칭할 수 없는 다양한 '정체성들'들을 표현하는 장치이자 은유였으며 정신장애여성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반영이었다. 당시의 시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면 당대의 '문학' 내지 비평장에서 '광인'과 정신장애여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형상들을 당대의 문학과 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했는지 추적하는 작업은 곧 1990년대 문학·문화가 무엇을 배제하고 타자화했는지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1990년대 문학장에서는 정신장애와 결부된 표현들이 서사의 특성을 의미하는 장치로 자주 동원되었다. 당대 광인, 광기의 이미지가 문학 비평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1993년『상상』에 실린 서영채의 글을 참고해볼 수 있다. 서영채는 "진정한 시인과 진정한 단편소설 작가는 오직 그러한 방식으로만, 광인이나 무당, 어린아이나 고집쟁이로만 존재한다. 그들의 **천진난만함이나 광기나 고집은 우리에게 정신적 소도의 구실을 한다**"[14]라고 말한다.

한경희는 위의 글에 대해 서영채가 '단편소설과 서정시'만큼은 "자본주의라는 공적 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적 진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내면을 재현하고 있어 문학으로서의 본 역할을 다하고 있다"[15]라고 말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내면성'의 구성이

14 서영채,「단편소설과 상품미학」,『상상』, 1993. 가을, 20-21쪽. 강조는 인용자.

15 한경희,「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현대소설연구』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56쪽.

1980년대와의 단절을 통해 자유주의적 개인성을 중심으로 문학장을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이다.[16] 이처럼 당대 '문학'에서 '내면성' 담론은 시대적 맥락에서의 새로운 '진정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헤게모니적 담론이었다.[17] 이때의 '내면'은 당시 '사인성'과 여성 작가들을 결부시키는 경향이 존재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근현대문학사 서술에서 여성문학과 '내면', '감상성', '감각성'이 연관되어 온 역사는 짧지 않지만,[18] 1990년대 문학 비평장에서는 '내면성'과 '여성문학'의 결합을 특정한 범주로 위치시키는 작업이 수행되었다.[19]

서영채의 윗글에서 진정한 작가에 해당하는 집단은 '광인' '무당', '어린아이', '고집쟁이'로 표현되며 '광기', '고집', '천진난만함'이 그 특징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이 특질들은 "우리에게 정신적 소도의 구실을" 하며 이는 "사소하므로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무당, 어린아이, 고집쟁이와 광인을, 그리고 천진난만함과 고집과 광기를 같은, '사소한' 범주에 동원하였다는 점이다. '공적 질서'와 대비되거나 그 안에 고립되어 있는 '사적 진실', '자유로운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한 존재들의 특성이 '미침'과 '순수함'이며, 이 특성들이 '사소함'과 이어진다는 점, '내면성-광기-순수성-사소함'을 연결하는 작

16 이러한 시각은 최근 1990년대 문학사가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되면서 지적되었듯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단절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천정환,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 『역사비평』 112, 역사비평사, 2015;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8.

17 1990년대 창작과 비평의 영역에서 문학의 내면성 담론이 일종의 헤게모니를 획득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관련 연구로는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18 김양선은 그의 논문에서 해방 이후 여성작가들과 감각성, 우울증, 애도, 불안, 나르시시즘, 슬픔과 비애, 자폐와 결벽성 등 감상주의로 명명할 수 있는 감정의 세계를 다양하게 펼쳐 보였으며 이를 열등한 것으로 저평가하는 방식의 문학사적 관행을 비판한다.(김양선, 「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9 1990년대 문학장의 '내면성'과 '여성문학'을 둘러싼 개념들은 비판적 역사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연관된 『문학동네』의 헤게모니적 담론의 기획을 주축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 『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특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참고.

업이 이를 '여성문학'과 연동시키는 작업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특정한 형상의 여성 광기가 문학적 헤게모니의 기획에 필요한 형상이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요컨대, 당대 비평장에서 '여성 문학'에 등장하는 '미친 여자'들은 여성의 내면 혹은 본질에서 비롯된 탈정치적이고 비저항적인, 혹은 제한적인 형태에서만 불온한 형상으로 해석되었다. 당대 문학에서 '미친 여자' 형상의 독해는 '내면'이라는 개념을 프레이밍(framing)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고 이 프레임의 구성 내부와 외부에서 정작 정신장애여성의 '내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아토 퀘이슨이 말했듯이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사회가 만들어내는 복수의 그리고 모순되는 의미의 프레임들 내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한 프레임들 내에서 장애인들은 한편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인[20]의 문화적으로 통제된 시선(gaze)에 대처해야 한다. 정상인이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위치시키는 프레임들은 온전함, 아름다움, 경제적 경쟁력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며,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이해들로 이루어진 특이한 결합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21] 1990년대의 비평적 맥락에서 여성의 정신장애는 헤게모니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에 동원되었고 그 구도 내에서 전형적인 수사로만 독해되어 시대적 변화를 대변하는 경향성으로 손쉽게 치환되었다. 그 결과 여성의 정신장애에 대한 은유가 시대의 경향에 따라 혹은 세대론적 분류에 따라 매끄럽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가 발생하고 변화하는 사회적이고 경험적인 맥락을 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은 한강의 소설이 장애여성 형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보통이 아닌 몸들이

20 여기서 '정상인(normate)'은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이 제시한 개념으로, "문화적 자아의 가려진 주체 위치를 말하는데, 즉 그들의 유표된 몸이 '정상'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일탈한 여러 타자들에 의해 윤곽이 그려지는 형상", "사람들이 자신을 거의 완벽한 인간으로 제시하는 데 사용하는 사회적 형상", 따라서 "신체적 구성과 그 구성이 갖고 있는 문화자본을 통하여 권위를 갖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 같은 위치가 부여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구성된 정체성"이다.(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2015), 그린비, 2021, 20쪽.)

21 아토 퀘이슨, 손홍일 옮김, 『미학적 불안감: 장애와 재현의 위기』, 한국장애인재단 디오네, 2016., 62쪽.

문화적 기호화, 타자성의 형상들이 문학적 재현과 관습 속에서 구성되는 방식이 의료화를 포함한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추적하는 일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제3, 4장에서는 한강의 소설들에서 정신장애여성들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의학적 경험의 일상성과 정신장애여성 주체성의 재현

3.1 일상적 의료권력과의 예속·거래·저항

한강의 정신장애여성들이 여타의 '미친 여자' 표상들과 사뭇 다른 점들 중 하나는 병식[22]이 있고 이를 통제·관리하려는 장면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주는 작품으로 「여수의 사랑」이 있다. 「여수의 사랑」은 직장인인 '정선'과 그의 동숙인 '자흔'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정선'은 아버지의 동반자살 시도에서 동생이 아닌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중 동생의 손을 뿌리친 자신의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하여 다른 사물들 역시 '더럽다'는 생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 심한 결벽증 때문에 후배를 비롯한 여러 동숙인들을 떠나게 한 전적이 있다. 동숙인 중 한 명은 "제가 보기에 언니한테는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23]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정선'의 결벽증 때문에 집을 떠나며 '미친 여자'와 동숙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아픈 여자'와 '미친 여자'의 결

22 의학에서 병식은 세 가지 다른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1)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개인의 인정, (2) 질환을 통제하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3) 경험한 증상을 비정상이자 질병으로 재명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i) individuals' acknowledgment of having a mental illness diagnosis; (ii) the recognition that treatmen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illness, and (iii) the ability to re-label the experienced symptoms as abnormal and part of the illness", David, A. S., "Insight and psycho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6*, 1990, pp. 198-808.) 의학은 이러한 정의를 가진 병식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의학이 환자의 비정상자로서 순응의 척도를 지적 능력으로 간주하며 치료의 필요 요소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병식은 '의학적 차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의 자각'의 의미로 쓰였다.

23 한강, 「여수의 사랑」, 17쪽.

합적 형상은 기존의 '미친 여자' 형상과는 다른 서사적 효과를 드러낸다. 돌출적 행동을 하거나 발산적 행동을 하지 않는 '정선'은 그저 고통을 겪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이지만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받으며 '비정상'으로서의 시선을 받는 인물이다. '정선'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결벽증에 대한 소문이 퍼져 친한 사람들을 모두 잃을까봐 걱정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정신장애를 인식하고 장애에 의한 시선과 그에 의한 일상적, 생활적 문제를 걱정, 해결하려 하는 행위의 소설적 재현은 소설이 그의 결벽증을 단지 해명되지 않는 타인에 대한 거부의 표지로서 도구적으로 소비하지 않게끔 한다.

이 결벽증은 구토 증세와 관련이 있는데, '정선'은 반복되는 위경련과 안두통 때문에 3년 넘게 단골로 다니는 내과 병원이 있다. "거기 나를 위한 처방이 적히고 있었다. 내 고질적인 통증을 일시적으로나마 구해줄 묘방이 그 쪽지 안에 있었다."[24]라는 대목은 의학적 치료가 일종의 거래, 본질적 고통의 해결을 해줄 수 없으며 권력적 비대칭성을 겪어야 하지만 삶의 유지를 위해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이 소설에서는 이처럼 '정선'이 일상적으로 의학적 처치를 받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정선'이 구토를 하는 장면에서는 "아직 용해되지 않은 파랗고 노란 알약과 캡슐들"[25]이 토해져 나오고, '정선'은 서랍에 스스로 찾아간 정신과에서 처방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 신경안정제를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며 일상을 이어나간다. 이때 이 신경안정제는 '정선'의 자발적 치료의 형성을 잘 나타낸다.

'정선'은 자신의 위경련에 의한 고통이 내과뿐 아니라 정신과 약물의 복용으로 완화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관리가 '정선'의 고통을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상을 이어 나가게 해 주며, 거리에서 찾은 동숙인인 '자흔'과의 소통과 관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병식과 관리는 자기통제를 하는 '미친 여자'라는 캐릭터를 형성한다. 이러한 형상은 여성의 광기를 비일상에서 일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일

24 한강, 「여수의 사랑」, 13쪽.
25 한강, 「여수의 사랑」, 13쪽.

상성은 정상성의 경계 또한 흐릿하게 하는데, '정선'의 병식과 자발적 치료 행위는 독자로 하여금 '정선'을 '미친 여자'의 형상의 경계 혹은 바깥에 있는 인물로 읽게끔 한다. 페트라 쿠퍼스(Petra Kuppers)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프로작의 일상적 부속품화를 비롯한 의학적 개념의 변화에 비해 미친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가 변하지 않았음을 비판한다.[26] '정선'과 같이 '전형적 이미지'에서 벗어난 구체성을 지닌 인물은 타인과의 교류 내지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 즉 결벽증을 비롯한 장애를 일시적이고 (문제적이므로) 돌발적인 것으로 서사화하지 않고 지속해서 고통의 심화와 완화, 의학과의 거래 등을 통해 지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린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가정주부인 '아내' 또한 갑자기 몸 전체에 퍼진 멍과 "영락없이 미친 여자처럼" 옷을 벗고 햇볕을 쬐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 배가 고프지 않고 토악질을 하는 것을 '증상'으로 받아들이고 병원에 간다. 또한 '종합병원에 가라'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병원을 찾지 않는다. '정선'과 '아내'와 같은 통제·관리적 주체는 의학적 치료 체계에 예속되어 있는 동시에 이용자로서 수동적 환자 이상의 주체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는 매드 운동의 흐름 중 c(consumer)/s(survivor)/x(ex-patient) 정체성의 강조를 떠올리게 한다. c/s/x 운동이란, 소비자(이용자), 생존자, 이전-환자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가는 운동이라는 뜻으로 파슨스가 제시한 '환자 역할'에 안주하거나 의료 체계나 사회가 부여한 '정신과 환자'라는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관점을 채택한다. 운동의 참여자들은 치료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의 필요에 부응하는 치료를 형성하거나 거부한다.[27] '정

26 Petra Kuppers, "Toward the Unknow Body: Stillness, Silence, and Space in Mental Health Settings", *Theatre Topics 10-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141.

27 Linda J. Morrison, "The Psychiatric Consumer/Survivor/Ex-Patient Movement", *Talking Back to Psychiatry*, 2005, p.4.

28 c/s/x 운동의 개념은 더 확장적인 정의를 가진다. c/s/x 정체성은 단순히 '환자 역할'에서의 벗어남 이외에도 정신의학 생존자로서의 정체성과 정신의학 비판적 시각에서의 활동가적 정체성 등을 의미한다. '정선'과 '아내'에게서 활동가적인 자아를 찾아내는 것은 과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c/s/x 운동의 시작점이 수동적 '환자'의 자리에서 치료의 '이용자'로서의 위치 이동임을 고려할 때 치료를 대하는 이들 인물들의 태도는 이

선'과 '아내'의 이용자적 면모는 의료권력의 일상적이고 대중적 침투를 일부 활용하여 삶의 지속에 기여하게 하며 이의 서사적 활용은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들 '유순하지 않은 환자'들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의료의 안과 바깥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극복'이 아닌 '완화'의 의미에서 아주 달갑지만은 않은 치료를 수행한다.

한강의 소설에서는 정신장애여성과 전문의나 비장애인의 관계에서 권력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이 중 여러 작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의사가 '이상 없다'는 진단을 내리는 장면이다. 이러한 장면들은 결코 긍정적인 경험으로 서술되지 않으며 여성 인물들은 자신의 경험과 이질적인 의사의 언급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언급했듯, 「여수의 사랑」에서 '정선'은 자신의 위경련 증상 때문에 단골로 다니는 병원이 있다.

의사는 처음 위경련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공포에 질린 '정선'을 보고 놀라지만 이내 정선의 호소를 사무적으로 듣고 '과로'로 치부하며 위 진정제를 처방한다. 이 장면에서 '정선'이 병원을 찾아서 의사에게 호소하는 고통의 범위는 의사가 의학적 증상으로 진단하는 범위보다 넓다. '정선'은 진료실에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해야 하는 '환자 역할'에 힘입어 의료적 검사에 진찰되지 않는 자신의 고통을 의사에게 외친다. 자신이 젊은데 정말 아프다는 진심 어린 호소는 의사에게 가닿지 않고, '정선'은 "과로하시는군요?"라는, '정선'의 고통과 가장 동떨어지고 축소된 원인 예측을. 의사로부터 듣는다. 그러나 이 의사의 진단적 시선과 처방은 오히려 '정선'으로 하여금 이 병원의 단골이 되게끔 하고 이는 '피로'라는 측정 불가능한 고통을 의료라는 제도를 통해 제한적이게 승인,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사의 '노말' 진단과 비공감적 응대가 서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진단의 양상은 의학적 진단이 인물의 고통을 이해·공감·해결해 주지 못함 혹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예의 단

전 '미친 여자' 내지 '아픈 여자' 서사의 정신장애여성들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c/s/x의 관점에서 이 서사를 주목할 수 있다.

정적인 억양”, “이루 표현할 수 없이 냉정하고 사무적인 음색”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의사 진단적 시선이 가진 위계와 폭력성을 폭로한다. ‘정선’의 경험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의사의 말은 진단적 용어가 인간의 고통을 축소 표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폭력을 층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불일치는 ‘정선’의 고통이 의학의 영역에서 통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통의 통제라는 개념이 환상임을 나타내며, 이를 ‘정선’으로 하여금 인지하게끔 한다. 이를 인지한 순간 ‘정선’은 자신의 위치를 고통의 호소자로부터 의료시스템의 냉소적인 이용자로 변경하여 ‘단골’이 된다. 이는 ‘정선’이 자신의 고통을 다루는 다른 지평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3.2 고통·고난의 발화와 침묵

1990년대 한강 소설의 장애여성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아픔’을 적극적으로 발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진단의 장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수의 사랑」의 ‘정선’은 의사에게 “난 아파요, 정말 아프단 말입니다.”[29]라고 자신의 ‘아픔’을 호소한다. 다섯 살이 지나도록 말을 하지 못했던 자흔이 처음 뱉었던 말은 엄마도 아빠도 아닌 “‘너무 아파요’”[30]였다. 이들이 ‘아프다’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순간은 자신의 고통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상태로, 자신의 주요한 정체성을 ‘아픈 사람’으로 구성하는 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남편인 ‘나’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발화하는 ‘아내’ 역시 “잘 자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이렇게 답답한 곳에 저희들끼리 갇혀서!”라고 “마치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고 술좌석에서 외치는 사람처럼 적의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고통의 근원에 대해 외치듯 발화한 적이 있다.[31]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치듯이 표현하는 장면은 한강의 다른 소설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

29 한강, 「여수의 사랑」, 23-24쪽.
30 한강, 「여수의 사랑」, 41쪽.
31 한강, 「내 여자의 열매」, 228쪽.

「여수의 사랑」의 '정선'의 의사에게, '자흔'은 보호자에게, 「내 여자의 열매」의 '아내'는 남편에게 고통을 '외치'며, 「질주」의 어머니는 '인규'를 향해 '전화'를 한다. 「흰 꽃」의 '중년의 취한 여자'는 선상의 다수에게 자신의 '외침'이 들리도록 호소한다. 이는 '환자됨'에서의 벗어남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며 질병 경험의 연결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의사를 향한 '외침'과 진단받은 증상의 '외침'의 경우 '환자의 말하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친년'의 웃음소리와 넋두리는 '미친년'으로 하여금 힘의 환상만을 가지게 하고 침묵하도록 하였지만 환자의 말은 진단의 대상이 됨으로써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하고 증상의 징후를 포착해야 하는 증거로서 취급되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의료적 증상을 설명하고 이에 의해 진단받는 수동적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말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친밀한 상대에게의 '외침'이나 다수의 상대에게의 '외침'의 경우 질병 경험의 연결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서 프랭크(Arthur Frank)는 "표현할 수 없는 통증 속에서 아픈 사람은 고립되며, 입을 다물면서 추방되었다고 느낀다.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 일단 표현된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한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라도 그렇다.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표현함으로써 아픈 사람은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온다."[32]라고 말한다. 질병과 장애의 경험은 그것이 표현될수록 "내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33]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34]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며 서로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넓어진다. 이러한 이야기함을 통한 연결은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계속 찾아낼 수 있"[35]는 가능성 또한 열게끔 한다. 아서 프랭크는 또한 아픈 사람에게 강요되는 긍정적인 겉모습에 대해 말한다. 아픈 사람들은 이중적인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프다는 것의 일관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노동이고, 두 번째는 사회가 아픈 사람에게 기대하는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이다.[36] 그는 "아픈 사람이 두렵고

32 아서 프랭크, 앞의 책, 59쪽.
33 아서 프랭크, 앞의 책, 10쪽.
34 아서 프랭크, 앞의 책, 11쪽.
35 아서 프랭크, 앞의 책, 32쪽.
36 아서 프랭크, 앞의 책, 103-104쪽.

비통한 마음을 잘 표현해서 칭찬받았다거나, 드러내놓고 슬퍼해서 칭찬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반대다. 웃지 않고 어두운 감정을 드러냈을 때 아픈 사람은 사과해야 할 것처럼 느낀다."[37]라고 말한다. 한강의 '아픔을 외치는' 여자들은 이러한 강요를 적극적으로 위반한다. 이들은 아픔의 경험 자체에 집중하여 그 경험을 의학 바깥의 언어로 설명하고 그 아픔의 고통에 슬퍼하며 큰 소리를 내어 비통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수전 웬델은 장애의 질병화를 터부시하는 (장애와 질병의 경계를 나누고 정신적 정상성을 강조하는) 장애학계에서 만성 질환과 손상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글에서 이를 같은 견지에서 비판하는 리즈 크로우(Liz Crow)의 말을 인용한다.[38] 그는 리즈 크로우가 "장애와 손상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함과 동시에 손상이 그 자체로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리즈 크로우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의학에 기반한 몸/마음에 대한 진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의 몸/마음의 경험, 그 경험이 여러 행위에 미치는 영향, 그에서 발생하는 느낌 그리고 손상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시각을 수정해야 함을 말한다."[39]고 언급한다. 이 언급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손상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여러 층위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발화하는 행위는 관계적/정치적 모델[40]에 의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관계적/정치적 모델에 의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란 강제적 비장애신체성/비장애정신성

37 아서 프랭크, 앞의 책, 104-105쪽.

38 Liz Crow, "Including all of our lives: Renewing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Encounters with strangers: Feminism and disability*, The Women's Press, 1996.

39 Susan Wendell, "Unhealthy Disabled: Treating Chronic Illnesses as Disabilities", *Hypatia 16-4*, 2001, p. 23.

40 앨리슨 케이퍼는 손상과 장애 사이에 선을 긋는 사회적 모델에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관계적/정치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장애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지 이와 분리되어 발생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의료적 접근이 장애를 탈정치화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를 집합적 재상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현장으로 파악"하여 재구성한다. (앨리슨 케이퍼,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42쪽.)

(compulsory able-bodiedness/able-mindedness)에 의한 정상성에의 지향이 아니라 장애의 경험을 관계의 층위로 옮김으로써 구성되기 때문이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아내'는 내과에 가서 의사의 위계적 진료와 자신의 고통이 과학적으로 진단되지 못함을 경험한 뒤 종합병원에 가보라는 '나'의 말을 듣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 식물로 변화함을 받아들인다. 이는 그가 치료와 재활을 거부하고 자신의 변화하는 몸을 결함이 아닌 종 다양성의 차원에서 재사유하기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가 꿈꾸는 곳은 단순히 '떠남'이나 '자유'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게 된다. 식물의 몸은 단순한 치유와 생장 가능성으로 의미화되는, 제약이 없는 비장애중심적인 곳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을 지닌 장애 신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다른 종이 가진 다양성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자신의 존재적 현실에 도전하기 위해 인간 범주를 고통스럽게 벗어난다.[41] '아내'라는 장애여성이자 식물은 문명의 반대편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는 평화와 모성과도 거리가 멀다. 그는 이전과 같이 문명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며 존재한다. 그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존재하지만 이전과 같이,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와 같이 취약한 존재이며 헤어지지 않으며 물을 줄 타인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아내'의 변종을 통해 식물이 침묵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려면 그 고통과 의존성, 취약성, 죽음의 가능성을 제외해야 하는가? 그 안에 '능동성'과 '동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또한 제기할 수 있다. '내장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음'은 왜 부정적인 지표로 해석되는가? 왜 정적임과 고요함은 침묵의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질문 또한 제기하게끔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비장애중심성에 대한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으므로 '아내'의 변종은 장애 신체·정신의 고정적 재현에 도전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41 김은정은 한국 독립 단편영화 〈인어공주〉(2013)의 농인 여성이 비장애인 남자친구를 물속으로 데려가 수어로 소통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함을 설명하는데, "인어라는 상상 속 종이 가진 다양성으로 장애를 다시 규정하면서, 농인 여성은 농에 대한 결함 모델에 도전하기 위한 인간 범주를 벗어난다"고 말한다.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41쪽.)

4 정신장애여성 재현의 시간성과 공간성

4.1 치유 폭력과 장애의 시간성

김은정은 그의 글에서 “타자를 소위 나아지게 해 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타자가 지닌 차이를 지우려는 힘의 행사를 묘사하기 위해”[42] ‘치유 폭력(curative violence)’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치유 폭력은 치유가 장애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고 치유 과정에서 그 대상을 파괴할 때 일어난다.”[43] 그러므로 치유라는 정치적 실행은 몸과 장애에 대한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은정은 치유 폭력이 두 가지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첫째, 장애와 질병을 삶의 다른 방식으로 보는 여지를 없애는 폭력이다. 둘째, 치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장애인들에게 신체적·물리적으로 가하는 폭력이다.”[44] 1990년대 한강의 소설들은 이러한 치유 폭력적 관계가 돌봄 제공자와 정신장애여성 간에 나타날 수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장애에 대한 능력주의적 시각을 비판한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의학적 진단이 소용없는 ‘아내’의 고통과 변화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지속해서 ‘종합병원에 가라’고만 외치는 남편 ‘나’와 ‘아내’의 관계는 치유 폭력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검은 사슴』에서는 ‘의선’과 ‘인영’의 관계에서 첫 번째 차원의 치유 폭력이 나타난다. 『검은 사슴』의 인영은 질주 이후 정신장애의 양상이 심화된 ‘의선’에게 치유자 혹은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자처한다. ‘인영’은 ‘의선’을 처음 마주하고 “저렇게 멀쩡한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라고 는 명윤에게 “아직까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45]라고 대답한다. ‘인영’은 질주 후의 ‘의선’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의선’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치료을 시도한다. ‘인영’은 ‘의선’에게 “정신 치료에는 예술활동이 좋다고들 하지? 뭔가에 집중하고 잊으면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46]

---

42 김은정, 앞의 책, 38쪽.
43 김은정, 앞의 책, 38쪽.
44 김은정, 앞의 책, 38쪽.
45 한강, 『검은 사슴』, 40쪽.
46 한강, 『검은 사슴』, 42쪽.

라고 하며 공작용 찰흙을 사주고 꿈에 나오는 것을 빚어보라고 한다. 이런 '인영'을 보며 '명윤'은 "어쩌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인영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47] 한다. '인영'은 '의선'을 어린아이로 여기고 '의선'의 성숙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지속해서 '의선'을 과거로 돌려놓으려 하지만 '의선'의 정신장애는 그저 그 양상이 변화하였을 뿐, '의선'은 질주 전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오히려 질주 후 "더 이상 의선은 병원에서 진정제를 맞을 필요가 없었다. 내장에 든 것을 모두 토한 뒤의 마르고 쓸쓸한 얼굴로 웃지도 않았다."[48] '인영'은 "낯설기 짝이 없는 백치스러운 웃음을 입가에 흘리"[49]는 '의선'의 인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 이전을 '장애 이전'으로 인지한다. 그래서 '인영'은 '장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의선'을 참을 수 없어 한다.

'인영'은 '의선'을 동등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환자로 대했다. 그래서 치료자를 자처했지만 이 역할을 견디지 못하고 '장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의선'을 폭력적으로 밀어낸다. 이 소설은 치료자를 자처했던 '인영'이 사실 돌봄을 받고 있었으며, 결국 '의선'의 존재를 부정했던 것이 '인영'임을 서사의 진행을 통해 점차 보여준다. 이처럼 『검은 사슴』은 '인영'의 동정적이고 자선가적인 시각을 폭로하는 전략을 통해 '인영'이 지닌 치유 지향적 태도가 폭력임을 드러낸다.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은 장애 인물이 "절대적으로 온전한 몸이라는 환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주, 자치와 자결의 환상을 폭로"[50]한다고 말한다. '누가 더 취약한 존재인가?'를 묻게 하는 '의선'과 같은 정신장애여성 형상은 '장애', '의존'과 '자립'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게끔 한다.

한강의 소설에서 정신장애여성들은 치유나 죽음이 존재하는 미래보다 고통이 존재하는 현재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들에게 과거는 고통의 근원이 있는 곳이며 돌아가고 싶은, 장애가 없었던 시간이 아니다. 김은정은 장애와 질병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와 치료된 미래만이 의미를 갖는 시간성을 '접힌 시간성(folded temporalitie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접힌 시간성이 적용된 세계에서 장애

47 한강, 『검은 사슴』, 42쪽.
48 한강, 『검은 사슴』, 158쪽.
49 한강, 『검은 사슴』, 257쪽.
50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앞의 책, 83쪽.

의 현재와 현존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존재와 장애는 치유되어야 하고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치유는 현재의 삶을 유예하고 그 대신 질병이 없는 미래를 기다리라고 요구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51] 김은정은 앨리슨 케이퍼가 이와 같은 시간 프레임을 '치유적 시간(curative time)이라고 부르며, 장애화된 상태에서는 진보라는 서사에서 배제되었다가 치유된 상태에서는 주인공의 역할을 맡아 진보, 발전, 승리의 의미를 얻게 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다.[52] 이러한 맥락에서 한강의 서사 속에서 정신장애여성들의 고통과 장애가 모두 현재적이게 묘사됨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서사적 묘사는 장애를 접힌 시간성 내에 배치하여 승리나 실패의 의미를 얻게 하는 것에 저항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이 인물들의 장애를 사회의 표상으로 치환하는 서사 역시 거부한다. 한강의 소설이 가지는 현재적 시간성은 인물들의 장애를 '90년대적'으로 일컬어지는 사회문화적 상황, 이로부터 파생된 "자아 실존의 내면적 문제"[53]를 은유하는 상징으로서만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

「질주」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질병 상태의 미래적 상, 완치 상태 혹은 증상의 심화 상태에 골몰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질병이 현재 자신에게 주는 의미에 집중한다. 어머니에게 치료나 죽음은 '진규'를 다시 낳는 일, '진규'를 다시 만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고는 독자에게 치유의 긍정성에 대해 다시 사유하게끔 하는 동시에 질병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서사화한다.

4.2 '가족'과 '고향'의 알레고리화

한강의 소설에서 고통의 지속이란 문제적 상태가 아니며, 서사 속 인물들이 지향하는 것 역시 고통의 종료, 치유나 완치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들의 고통의 양상은 인물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이는 주로 공간의 이동과 함께 발생한다. 한강의 인물들에게 공간은 기

51 김은정, 앞의 책, 28쪽.

52 김은정, 앞의 책, 28쪽.

53 현택수, 「90년대, 결코 우울하지 않은 문학적 투쟁의 흔적들—90년대 세대논쟁의 사회학적 의미」, 『문학동네』 12, 1997.

억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다. 기억은 인물들의 정신장애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기억과 결부된 정신장애는 인물의 이동을 추동하게 된다. '가족'과 '고향'의 의미는 그 범주를 확장하고 의미를 달리하여 '다른 가족'과 '다른 고향'이 된다. 정신장애여성 인물의 '다른 가족'과 '다른 고향'이라는 설정은 비장애인 인물의 고향 서사와 대비되어 노스탤지어의 폭력성을 부각하기도 하며, 트라우마로 인해 미친 여자라는 서사를 변형시켜 그 전형성에 대해 질문하기도 한다.

『검은 사슴』의 '명윤'의 경우 '정환'과 다르게 "땀과 피를 싫어"[54]하는 인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명윤'은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에 못 견뎌 집을 나간 누이를 몇 년에 걸쳐 찾다 '의선'에게 자신의 누이를 투사하여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다 '의선'이 사라진 뒤 누이를 찾는 것처럼 '의선'을 찾는다. 결국 '명윤'은 열차 사고를 당해 신문에 기사가 실린 뒤에 누이에게 연락을 받는다. 그 후 '인영'의 집에서 '의선'이 놓고 간 사진이 발견된 후 '인영'은 '명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한다. 이러한 서사는 한편으로는 오빠인 '명윤'의 성장과 함께 '누이 찾기'가 완결되는 데에 누이인 '명아'가 이용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서사의 마지막에 '명윤'이 살아남고 누이를 찾은 뒤 '인영'과 '의선'의 관계를 포함한 삶이 다시 진행된다는 점은 이제 누이를 투사하지 않고 개별적 존재로서 '의선'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선의 변경에서 '의선'의 존재는 유약한 존재로서의 '미친 여자'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선' 또한 자신의 가족과 고향으로의 여정을 마친 뒤 '인영'과 '명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이들이 애써 찾고자 한 '가족'은 서사 속에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서로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범주의 확장은 정신장애여성인 '의선'의 존재를 콤플렉스와 이미지의 위치에서 관계망 속의 주요한 주체로 끌어오며, '가족적 트라우마에 의한 미침'이라는 고정적 서사에서 벗어나게 한다.

한강의 소설에서 정신장애여성들의 이동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앎을 확장하고 갱신하기 위한 기획이자 타자와의 관계와 돌봄을 향한 여정이다. 이는 정신장애의 과거적 원인을 홀로, 자기통제적으로 치료하기를 제시하는 의료의 기획과 대비된다.

---

54 한강, 『검은 사슴』, 120쪽.

5 결론

이 논문은 1990년대 한강 소설의 정신장애여성 재현이 당대의 정신의학적 담론과 관련된 인식 체계의 변화와 '미친 여자'의 문학사적 은유의 교차적 맥락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착목하여 이를 여성주의 장애학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1990년대는 생물학적 원인과 약물치료를 강조하는 생의료화로 인한 정신의학 권력의 강화와 일상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의해 자기통제적 신화에 기반한 인식 체계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점차 정신장애여성의 몸·마음을 의료 체계에 기반하여 사유하게끔 하였고 문화적 '미친 여자'의 형상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소설들에서 '미친 여자'는 당대 여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동원되었던 형상이다. 이 '미친 여자'의 형상은 위와 같은 맥락 속에서 '미친·아픈 여자'의 유형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서사의 맥락에 따라 고통을 나타내기 위한 타자적 은유로 동원되기도, 다양한 '정체성들'을 표현하기도 했다. 1990년대 한강의 소설에서는 다양한 '미친·아픈 여자'의 형상과 그 관계성, 시간성의 제시와 '미친 여자' 서사의 변형 등을 통해 정신장애여성의 신체성을 고려한 재현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강의 소설에서 나타난 정신장애여성 인물들과 그 서사의 현존적 재현을 고려하여 기존의 분석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신장애여성이 재현된 한강의 1990년대 소설은 전형적 환유를 경계하고 정신장애여성의 실재를 고려하는, '신체화(corporealization)'을 부각한 서사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정신의학 패러다임의 변동과 한국의 '미친 여자' 서사의 계보, 1990년대의 주요한 형상으로서 '미친 여자'의 등장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더하여 이와 같이 정신장애여성의 현존을 부각하는 형상은 1990년대의 소설에 한정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존적 정신장애여성 형상은 이후 한강의 작품에서도 꾸준히 등장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하나의 사례로 『채식주의자』[55] 연작을 살

55 한강, 「채식주의자」, 『창작과비평』 124, 2004, 여름.; 한강, 「몽고반점」, 『문학과사회』

펴볼 수 있다. 2000년대의 권력에 저항하기를 실패하는 '미친 여자' 형상은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상과 서사는 한국소설에서 가부장적 권력구조가 나타나는 맥락의 변동과 신자유주의적 생존 기술로서의 정신의학적 관리 명령과 자기계발적 치유문화, 이와 관련된 국가주의적 발전 이미지의 확산과 같은 2000년대적 맥락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문학에 축적된 정신장애여성 형상의 형성 조건과 '미친 여자' 서사의 보다 치밀한 상관관계와 변동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문화적 담론과 문학사적 맥락을 장애학적 시각을 투과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서사와 그 재현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루 밝히는 구체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한강, 「여수의 사랑」(1994), 『여수의 사랑』(1995), 문학과지성사, 2001, 11-58쪽.

___, 「질주」(1994), 『여수의 사랑』(1995), 문학과지성사, 2001, 59-80쪽.

___, 「내 여자의 열매」(1997),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비평사, 2000, 216-242쪽.

___, 「흰 꽃」(1996),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비평사, 2000, 260-281쪽.

___, 『검은 사슴』, 문학동네, 1998.

단행본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2015), 그린비, 202.

산드라 길버트, 수잔 구바,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이후, 2009.

수전 웬델,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역,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앨리슨 케이퍼,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67, 2004, 가을.; 한강, 「나무 불꽃」, 『문학 판』 17, 2005, 겨울.

Elizabeth Donaldson, “Revisiting the Corpus of Madwoman: Further Notes Toward a Feminist Disability Studies Theory of Mental Illness”, *Feminist disability studies*, Indiana University Press, 2011.

Linda J. Morrison, “The Psychiatric Consumer/Survivor/Ex-Patient Movement”, *Talking Back to Psychiatry*, 2005.

Liz Crow, “Including all of our lives: Renewing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Encounters with strangers: Feminism and disability*, The Women’s Press, 1996.

논문

김양선,「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여성문학연구』제3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267-293쪽.

서영채,「단편소설과 상품미학」,『상상』, 1993 가을, 20-21쪽.

이현정,「1991~2010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우울증 담론의 변화와 그 문화적 함의」,『한국문화인류학』제45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2, 43-88쪽.

한경희,「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현대소설연구』제8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39-85쪽.

현택수,「90년대, 결코 우울하지 않은 문학적 투쟁의 흔적들—90년대 세대논쟁의 사회학적 의미」,『문학동네』제12호, 1997, 1-13쪽.

David, A. S., “Insight and psycho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6*, 1990, pp.198-808.

Nikolas Rose, “Beyond Medicalisation”, *The Lancet 369*, Elsevier Science B.V., 2007, pp.700-702.

Petra Kuppers, “Toward the Unknow Body: Stillness, Silence, and Space in Mental Health Settings”, *Theatre Topics 10-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129-143.

Susan Wendell, “Unhealthy Disabled: Treating Chronic Illnesses as Disabili-

ties", *Hypatia 16-4*, 2001, pp.17-33.